



최지훈 루끼치 선생.

최지훈 루끼치 선생은 1913년 9월 9일에 원동변강 연해주 수철구역 시베찬에서 빈농민인 최루가의 외남으로 탄생하였다 그의 복친 최루가는 1914년에 러시아 군대에 증병되어 제1차 세계 대전에 참가한 참전자였다. 지훈 선생이 탄생하신 시베찬 농은 (현시 로어로 알렉세예프카) 원동에서 유명한 다우지미촌에서 약 십리가량 떨어져 있으며, 포수동과 아래령도 약 10-15리 간격을 두고 있는가하면, 유명한 부두들이며, 대어장들이

우.

나호도가 항파 북자진 및 유단재항등도  
약 30-40 리거리씩 주고 놓여 있는 즉 한인들이  
집합적으로 살고 있는 큰 촌들의 중심부에 놓여 있  
는 동안주의 간도나 연길시와도 상사하였다. 때문  
에 매년 한인 불명절, 단오 때 현 권 원등변강  
범위에서 진행 되는 소포츠(운동) 시업은 바로 다우  
지리와 시베한 사이에 놓여 있는 큰 병원촌에서 진행  
되었던바, 동운 등시업에는 동안주에 살고 있는 한인을  
동침들도 참가하였던바, 매년 전선 축구시업에 참  
가하여 명성을 떨친 간도 "동농중학교" 축구팀을  
그 운동장에 불인 관객들로 보곤 하였다. 한인들이 강제  
이주 당하기 전까지는 매년 한인들의 불명절인 단오,  
추석이 되면 이광장에서는 축구뿐만 아니라, 씨름  
그네 뛰기, 널뛰기, 줄 단기등 운동시업을 조직하는  
한편, 한인들이 즐겨먹는 각종 떡, 각종 국수, 떡국,  
편 등으로 많이 만들어 풍부하게 팔곤 하였다. 더 명절이  
12월 한인들이 서로 오례 동안 만나볼지 못한 사람끼  
리 서로 만나볼기 위하여서도 수백리 길도 불어 원리  
하곤, 노숙기, 말 달구지, 당나구 등은 하곤 불어 와서  
는 3-4 일 동안은 밖에서, 즉 운동장 주변에 풍  
등을 쳐 놓고 유숙하면서 운동구경등을 하였다



화지훈 선생은 이렇게 위치 좋고 호양이 비옥하여  
 약 20 리 떨어진 끝에는 큰 삼림이 있는가하면, 역시  
 약 20 리 밖에는 아래렁이 연달아 큰 해변강이 있  
 는가하면, 다우지리, 시베찬은 큰 바다에 떨어 지는  
 다우지리강, 시베찬강이 들어 그 눈락의 옆을 스치르  
 르기 때문에 왼쪽의 큰 바다에서 잡아오는 물이, 가래미  
 정어리, 명태 외에도 연어, 농어, 황어 및 송어 등이 특진  
 장하게 강을 따라 올라와 가리를 흐르는 고로, 빛  
 물고기도 활활이 돌아다니며 잡아먹는 곳이었다.  
 화지훈 선생은 향촌 시베찬에서 초중을 마치고 1929  
 년에 형이 살고있는 우크라이나의 하리검시에 찾아  
 가서 러시아도 잘 배우고, 말도 하고 공부도 하려고 결심하  
 였다. 화지훈 선생의 형은 혁명시기에 혁명군에 참가  
 하여 연속 복역하다가 1924년 복역 다시는 원형에  
 돌아올 예사로 하지 않고 계속 하리검소에서 살고있었  
 다. 그러나 자기와 일생을 같이 할 부인은, 1928년에 시  
 베찬에 와서 물엿집 고씨집, 고치선이란 다국 민족의  
 절색한 여자(장년.바)를 골라 데리고 갔었다. 화지훈 선  
 생은 1936년에 하리검시 농촌정리 대학을 마친 하였  
 으나 농촌으로 가지지 않고 교편을 잡고 학교에서 일  
 하기 시작하시였다. 1941년, 동소련전쟁이 시작되자 최  
 선생은 공병로써 동병복대에 복하여 적과 싸우게 되었던 바  
 그는 과거 포병군관학교에서 잠시 공복한 경험이 있어 완전  
 최상부처 76 미리 디스페리 사단도 포수로 전쟁마  
 지막날까지 우크라이나, 광야, 벨라, 우크라이나, 암스드리아

독일 베를린 시 해방전에까지 참전하시였다. 최선생은  
 제 14 쿠르베바르 포병근위사단에 속하여 독일군과 대전할시  
 중상을 당하여 원시 병원에 입원하여 4개월간 중환  
 자로 치료받은후 자기가 복무하던 근위 포병사단을 찾으  
 려하였으나 전후복대들이 급격이 대북으로 서쪽으로 향하여  
 전진하는 관계로 자기 원함복대는 찾아 못내고 최고사령부  
 제 1 예비사단에서 전쟁맞어막날까지 참전하시다가 1945  
 년 6월에 압스드리야에서 복무하는 지지훈 선생에게는 모스  
 코바 최고 사령부 간부직으로 복귀 송환장을 받게 되었다 최선  
 생은 최고 사령부의 명령이기에 모스코바에 도착하니, 간부직  
 예서는 최선생더러 군사대학에 가서 공부하시라고 하였다. 본래  
 학생교육사업에 전심을 다하여 일하시던 교육자에 있어서 조국  
 전쟁 5년간도 땀과 피가 나서 대일강어 제대 명령을 기다  
 리던 최선생에게는, 다시군인 생활을 할생각은 전혀  
 없어서 제대시켜달라고 요구하니 간부직장은 전쟁도 아직  
 끝 나지 않았는데 제대란 다 무엇인가? 하고, 물론 그러면  
 이번에는 압스드리야로 다시 가지 말고, 원릉변강 소련군  
 제 25군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였다. 군인은 상관앞에  
 서 꼭 두가지 대답밖에는 할 권리가 없는것이였다 그것은!  
 예, 들었습니다, 그렇지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최  
 선생은, "예 들었습니다" 하고 대답한후 간부직에서 원릉  
 제 1 전선 25군단 대열보충국 관하로 파견한다는 파  
 견장을 받아 들고 1945년 8월 1일에 모스코바를  
 출발하여 원릉변강 우부리시를 향하였다 8월 10일  
 에 우부리시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체르니 못한 군단후





사진은 지훈 록끼츠가 무즈베헤한에 귀환한후 자기 복원 조애자양과 같이 1983년에 찍은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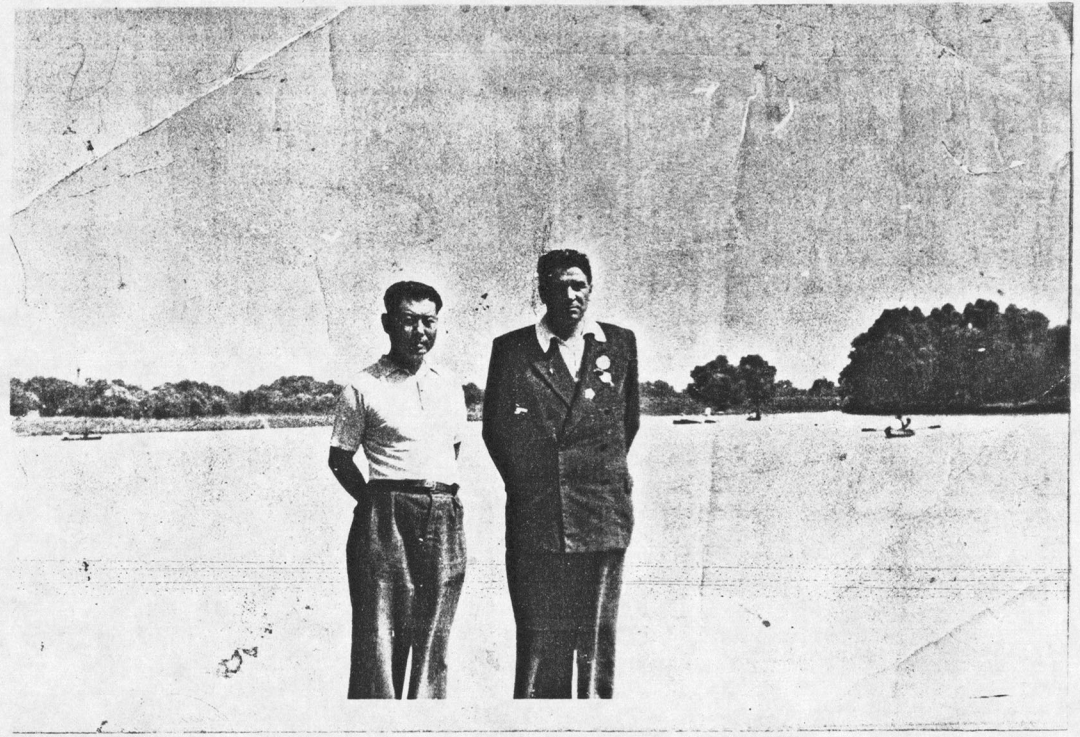
방부, 병기국, 군의소 등이 짐들을 화물차에 실으려, 어찌 아침에 만주국 정선을 돌파하고 계속 전진하고 있는 전후 부대들을 뒤달아 갈 준비들을 하고 있는것이였다. 최선생은 역시 아직 자리를 뜨지 않고 무전으로 전후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는 연합부대와 부대들을 지휘하고 있는 25군단지휘부에 찾아가 대원보충국장에게 자기도착에 대해 물어 보고 하였다. 최선생은 그후 집단군 사령부 정찰부에 넘어가게 되였다. 25 집단군 정찰부 산하에는 유일하게 일흔년 88 정찰 여단이 있었으나, 여단장에 중국혁명자 주보준, 참모장에 러시아인 세로긴이 계셨으며, 바로 여단장제 1 대 대장으로 김일성이 자기 대대 성원들과 함께 속하여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서쪽에서 미래 금방 25 집단군 본부에 도착한 최선생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수 없었다. 최선생은 평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집단군 정



좌익에 속하여 자기가 받은 업무만 수행하였다  
 때문에 저술 루끼치 선생은 노련으로 부터 파견되어  
 북한에서 활동한 노련 출신 고려인들이 400 여명이  
 넘었지만 서로 알고 지낸 사람은 몇 명 없었다  
 군대내에서의 경찰이 의무란 전후 행동이 계속되는  
 환경에서만 그 사람이 중대하지만 열제가 후방화  
 고 조선반도가 중단되어 남북으로 갈라진 조건하에서  
 경찰병들이 하여야 할 의무는 점점 사라지고 그대  
 신 안기부의 일이 대폭 늘어가기 시작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1946년 경호부에서 저술 루끼치는 경찰부로  
 부터 송환되어 정치부로 넘어가 그의 직속으로 평양에서  
 발간 되고 있는 "노베트 신보" 신문사에서 번역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 신문은 그 당시 두 적대 계급이  
 38선을 경계로 하고 자기 사상의 정당성, 생활성  
 전망성을 매일-매시간 있는 힘을 다하여, 각종  
 (선)무당을 다하여 전세상에 전파하고 있는 환경  
 에서 저술 루끼치 선생은 자기의 전근을 타루  
 영예롭게 생각 하였다. 신문은 호지 개혁을 다루고  
 호지 개혁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호지는 국가면적의 일부로서 개인이소가 될 수 없  
 다고 강조 하였으며, 다음 1946년 3월 부터 시작한  
 산업 국유화에 대하여서도 산업을 국가 경영의 기본  
 역량으로 된 반듯이 국가의 소유가 되어야 하며, 전라부  
 후자가 인간 축적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국가적  
 전연적인 소유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그의  
 에도 노베트 국가의 평화 정책에 대하여도, 노련이  
 시작한 정책은, 단 그가 시작한 전쟁은 반듯이



정당한 정책이며,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었다.



사진은 1947년에 "소베트 신보" 신문 주필 유르자노프 와 같이 촬영한 것이다.

남한 서울에서 열린 소련 및 미국 대표들의 회의 즉 다시 말하여 소련 서울 공동회의에서 소련 측 대표인 스티븐슨 대장의 제의에 미국 측이 동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 대표는 "소련 군대는 1948년 말까지 북한에서 철퇴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의한다"고 선언한 그 선언에 따라 북한 측은 소련군 제 25군단은 1948년 12월 까지 완전히 철퇴하게 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소베트 신보" 신문사도 철퇴하게 되었다. 이 당시에 소련 공산당 조직 지로부의 결정에 따라 소련군 25군단 산하에서 적을 죽고 북한 각 기관 사회 단체, 북한 인민군 소속으로 있던 전체 고령인 인민들은 극적, 당적

군적 등에서 세적 리어 북한적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시기에 지리훈 루끼치는 자기 기본 직업대로 소련  
 출신 어린이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평양시에 조직한  
 로어고중 (보통 6고중이라고 칭하였음) 에서 수학 교원  
 겸 부교장 역을 겸임하였다.

지리훈 루끼치 선생은 남성이 아주 온순하고 말성이 드문  
 성미로써 누구와도 속사리 잘 가깝아 지는 사람이다  
 선생은 일찍이 항중인 원종 변강 시베찬을 따라  
 우크라이나 하리고브시에서 대학을 나왔고 독소  
 전쟁 전까지 그는 고중에서 수학교원으로 하면서 러시아  
 교원에게 장가를 들어 아들 하나까지 태어난 것을 보고  
 1941년에 독소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  
 하므로 그의 러시아 부인은 1943년에 사망하고 그의  
 예에서 태어난 아들만은 사라졌었다. 원제는 소련 전  
 쟁, 조선 전쟁 끝났기 때 물에 삼십세 즈음 넘직한  
 난파로서 계속 혼자 몸으로 땀 흘려 버렸다. 특히나 할  
 아버지 고향 땅 북한 회령 땅은 3년 전, 조선 해방 전  
 쟁시에 자기 발로 밟보려 지나와서도, 그동안 3년이  
 란 긴 세월이 지나서로 한사에 결혼한 최선생은 다시  
 가 보시지 못하였다 특별히 자기가 일하고 있는 신  
 문사 교령부에 큰 야근답은 처녀들이 많이 일하고 있었지  
 만 장가갈 문제는 매 일같이 차일-피일 밀다나니 3  
 년이란 세월이 어느새에 지나갔다 그러던차 평양시  
 공영회치, 대릉을 앞에 넘어 펼쳐 놓은 경리회는 변항한  
 중앙 시장과 평양 주영 백화점을 비롯하여 무엇이나 떠버리  
 눈감에 구며 할수없는 한 줄점들이 줄-줄이 서 있는 여곳에서  
 살고 없으리 상경이 흥분하여 신문시에서 취직하고 있던 처자  
 조 애자와 약속하고 북으로 돈까지도 동의를 얻어 떠어 가는



손까지 하게 되었다. 옛날부터 조씨가 물은 양반  
 내탕의에서 여말 저말 한 집안인데, 애자은 그 가문의  
 나번새 딸이로, 그집에 아들 한 사람도 3형제나 되는  
 집이었다. 이렇게 새가정이 이루어지자 약 1년여 뒤  
 난 후 지훈 록기치는 6고종 복고장검, 우학교원으로  
 복임되어 율하시면서 아이들의 교육고양에 전력을 다  
 하였다. 최 선생은 동족 상잔 시기에도 아동들의 교육사업  
 에만 꾸준히 노력하시였다. 1957년에 피라 피양에서  
 도 지적하였지만 아주 유능한 성의를 가진 최 선생도  
 당 사상 검수 회의에 저덕마다 불려다 놓고는 1대 조선  
 선물과 조선 책만 즐겨 읽는가? 조선파 거북들이 허가이  
 빨강북, 빨리완, 남일 등의 어떤 령학이 있었으며, 왜  
 조선만 좋다고 어린이들에게 선전하는가? 조선 사대주  
 의자나, 조선파의 하려는 2대 당회의에서 심문하고 조사  
 하고 하여, 평양에서는 계속 살다가 없어서 1957년  
 말에 조선 대사관에 국적 회복과 업국 허가증 발급에  
 대한 정원을 제출하여, 1958년 8월에 조선 모스크바  
 에 귀국하였다가 조선 공산당 중앙 조직부에서 물건  
 수속 절차를 걸쳐서 하슈젠은 시에 도착하여 사행  
 을 배정 받고 밀라리 수속을 하고 아이들의 공부를 계속할  
 문제로 해결받았다. 지훈 록기치는 조선에 귀국한 다음  
 높은 연노금을 받는 연금생활을 계획하고, 교육사업을 계속  
 하리 않고 "플로드노스드로이" 라는 처녀지 개간 건설장  
 에 가서 3년간 고생할것을 각오하고 따슈젠은에서  
 약 120 필로세 하 떨어진 곳에서 글렀하시면서 왜  
 노모일과 딸모일만어 집에 와서 계시곤 하였나.

세월은 너무나 빨리 흘러 1973년이 되자 지지눌 루끼  
씨는 비교적 높은 연령으로 추축하여가지고 작기가정에 들어왔다.



지지눌 루끼씨 선생의 60세 - 환갑에 의하여  
친척들이 모여 축하하는 장면.

최선생은 나이는 60 고령을 맞이하여서도 신체는 아주  
건강해였다. 때론의 년급 생활을 하면서도 부근에 있는 고중  
에 나가 매일 몇시간씩 수학 시간을 공부하곤 하였다. 이  
렇게 70세 되는데까지 매일 갖어 학교에 나가 어린 세  
대들의 교육에 힘써 받히면서 노년 시기 고통을 줄곤 하였다.  
근황에는 이전과 같이 여권하 하뉴권하, 칠란사르 구  
제 9동 31 아바하에서 건강한 몸으로 날이면 신문과 책도,  
저녁이면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하여 국제 정세를  
바로 보아짐 없이 연구하면서 항상 남쪽 하늘을 쳐다  
보며 원망하는것은 볼판된 조국 흥일 되리 못하든 때 때  
하여 애하게 속심 세기려 매일-매일을 보내시고 있다.  
최 선생이 항상 다 뜻한 사람을 만나서 반세기동안 10  
간이 사고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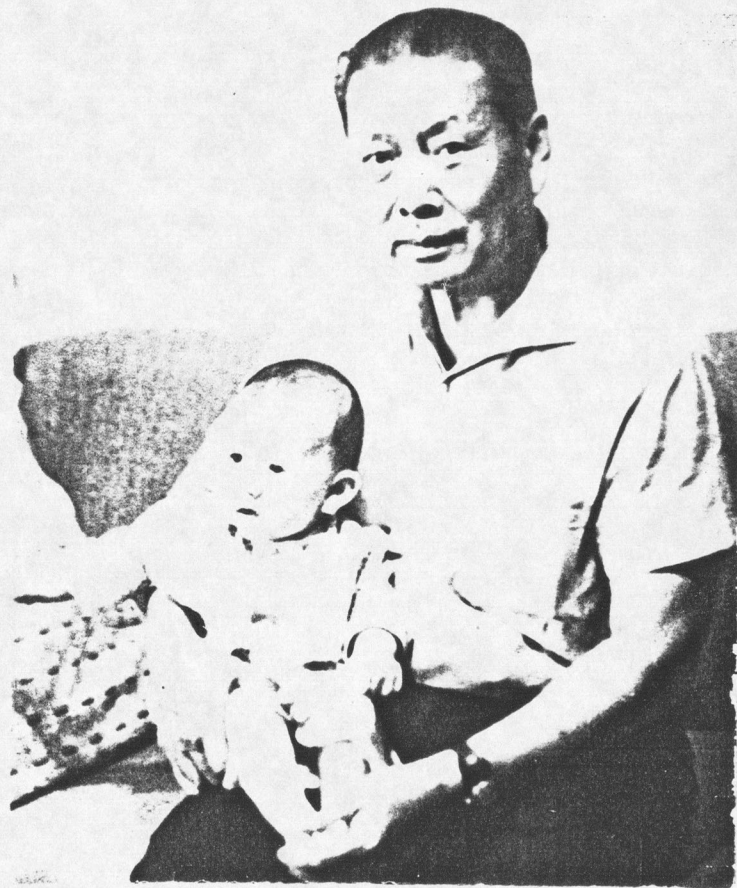


조 애자 사모님의 평양에 도착하여 자기 모비화  
 조 어절, 자기 형 조 애선과 함께 환갑상을 받고  
 있는 장면.

애자 사모님은 1993년에, 때 맞음에도 자기 한생 70  
 주년이 되는 해에, 또 달콤한 유년시대, 학창시대를 보낸  
 정든 고향 떠나서 35년만에 친척을 찾아서 평양시  
 모란봉 아래 기쁨 경세리에 갔었다. 집에 간다는 소식을  
 들은 친척들은 평양 역전에서 반가히 맞이 하였으나, 35년이  
 지나는 사이에 아버지 어머니는 벌써 별세하시고, 또 여남  
 친척들로 역시 그렇게 되었다 참 세월이란 사정없는  
 무서운 흐름이다 애자 사모님은 평양에서 떠나서 1947  
 년에 시집간 다음 두르베코항에 와서 아들 형제 딸 셋까지  
 예다 또 남편의 본부인께서 난 아들까지 합해서 3형  
 제 성장 시키다 보니 역시 부세가 되었다 보니 세월이  
 흐르면 남이 흘렀다 그러나 그 사이에 친척이 13년

12

타향에 와서 긴 세월을 살아보니 환갑상이란 받지못하  
 였다. 내 몸에 오래간만에 만난 친척공에서 특히 호박과  
 누이동생의 환갑상 초리는 것을 받지못하고 내가 뉘를 끄지못한  
 다고 하면서 평양 살림사리 행동권이 크게 너그러워지듯한 평  
 원에서로 꼭 환갑상을 받고 집에 돌아가리라 하였기에 어렵은 대사를  
 껴었다. 지리술 록게 최 양 구도 부부가 된 첫날부터 어디까지  
 지 아주 다정히, 더 웃어 보일 록게 살면서 복을 많이 받  
 은 가정이다.



아들 3 남동생과 작은 아들은 (Xapay) 하리끄브시에서 살  
 려 큰 공장의 책임기사를, 다음, 아들 형제는 하슈켄호시  
 권설장에서 책임자를 맡고, 큰 딸은 바베제르복르코  
 에서 살고 있고, 둘째 딸은 헝가리 바르나에서  
 에서 일하며 살고 있다 하슈켄호시에서 살고 있는 자식

12



들은 내국 북은 들의 집에 찾아와 보고, 돌아올일이었  
13,  
면 짐지르 하고, 파라나 사이다 습도수 같은 것으로 들고 오곤 한다.



그지 슬 록게치 선생은 이렇게 책과 신문을 열  
서히 읽으며 조국의 흥일을 위하여 깊은 연필  
을 하시피 계십니다.

1997년 10월 29일 하유권은